

# 대한상의 브리프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제139호 2021년 1월 4일



복잡해진 금융규제를 잘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레그테크(RegTech)’ 활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레그테크의 개념과 활용사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규제 지키면서 리스크 줄이는 기술, 레그테크(RegTech)

최근 기술혁신과 국가 간 거래 활성화로 다양한 금융 상품이 출시되면서 금융기업들 사이에선 규제 대응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상품과 거래가 복잡해지면, 규제 환경도 훨씬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 거래나 클라우드 펀딩이 활발하다 보니, 해외 규제에도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의도치 않게 규제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를 위반하면 어마어마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기업들의 규제위반 벌금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부과된 벌금은 연간 140억 달러(약 15.6조 원)를 넘어섰다. 가장 많은 규제 위반 사례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이다.

### ‘레그테크’란?

레그테크는 규제를 의미하는 ‘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AI·블록체인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한다.

레그테크는 자금세탁방지, 규제변화 대응, 준법관리, 내부거래 모니터링, 고객식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과 함께 활용 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정부-기업 간 ‘시스템 동기화’를 통해 규제정보, 금융거래정보, 제재 대상자 명단(테러·인권 사범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업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글로벌 금융회사 벌금부과액(2020년) ]

(단위: \$)

순위	회사명	국적	벌금액	순위	회사명	국적	벌금액
1	Goldman Sachs	미국	62.5억	6	Swedbank	스웨덴	4.3억
2	Wells Fargo	미국	30.0억	7	Citigroup	미국	4.0억
3	JPMorgan Chase	미국	11.6억	8	Deutsche Bank	독일	1.7억
4	Westpac	호주	9.1억	9	Scotiabank	캐나다	1.3억
5	Bank Hapoalim	이스라엘	9.0억	10	The Cherry Hill	미국	1.2억

※ 자료 : Finbold

## 분야별 레그테크 활용 사례

### ① 자금세탁방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통계분석을 통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비정상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블록체인, 클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수법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레그테크 시스템은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자금세탁 수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잡아낼 수 있으며, 오류 발생 확률도 훨씬 낮다. 아이슬란드의 란즈방킨(Landsbankinn)은행은 레그테크 솔루션을 활용해 매일 1,000여 건에 달하던 탐지 오류를 100건 수준으로 줄였다.

### ② 규제변화 대응

수많은 규제기관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바뀐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레그테크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덜란드 기업인 볼터스 클루버(Wolters Kluwer)의 레그테크 솔루션은 50여 개국의 규제 개정사항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준다. 시가 비슷한 분야의 규제들을 카테고리화하면 기업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제 내용만을 골라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도 있다. 스페인 상업은행인 BBVA, 미즈호(Mizuho), 중국 상업은행 등 다국적 은행에서 이를 이용해 여러 나라의 규제 변경에 실시간으로 대응 중이다.

### ③ 규제업무 자동화

레그테크는 각종 행정처리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에 기여한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Aurep’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중은행들의 보고의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은행이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최종 보고서를 생성하여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까지 수신한다. 덕분에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보고 업무 비용은 30% 이상 줄어들었다.



## [ 우리나라 금융보안원의 레그테크 서비스 ]

1	2	3	4
<b>컴플라이언스 관리 자동화</b>	<b>금융보안 보고서 자동 제출</b>	<b>금융규제 통합검색·알림</b>	<b>금융보안 업무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율보안평가 등 보안 점검 도구 제공</li><li>- 각종 보안점검 결과를 시각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고서를 온라인에서 작성·제출</li><li>- 보고서 접수현황 한눈에 확인·관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보안 규제정보 등의 통합검색 기능 제공</li><li>- 정책 이슈 발생 시 신속 알림(SMS, 카카오톡)</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책, 가이드라인 등 금융보안 관련 정보 제공</li><li>- 금융보안 설문·자문·커뮤니티 서비스 등</li></ul>

※ 자료 : 금융보안원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신한은행은 AI와 로봇을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RPA)을 활용해 기업의 재무제표 입력업무를 자동화했다. 직원이 사업자번호와 재무제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국세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 입력하고, 직원에게 완료 알림을 보낸다. 업무 시간뿐 아니라 잘못된 숫자 입력으로 인한 오류도 크게 줄었다. 신한은행은 업무자동화로 2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 내부통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최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자금 유용, 금융사기 등의 사고 예방뿐 아니라 모든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실시간 준법감시'로 확대되고 있다.

HSBC은행은 레그테크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의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레그테크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지점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업무를 차단한다. 그 밖에 전산 기기의 보안 솔루션 설치 여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태 등 보안 관련된 현황도 모두 점검한다.

## 5 고객신원 확인

서류 검토와 위변조 검사로 긴 시간이 소요되던 고객신원 확인 절차 역시 빨라지고 있다. 국내 레그테크 업체인 아르고스(Argos)의 솔루션은 딥러닝에 기반한 얼굴 인식 기술로 고객의 사진과 실물의 유사성을 수동검사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또한 고객의 신용도평가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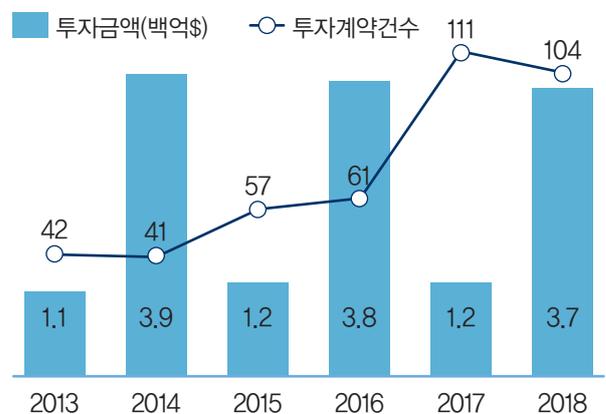
## 글로벌 레그테크 발전 동향

선진국에서는 규제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레그테크의 활용을 주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활발하다. 선진국 정부는 감독업무를 효율화시키고, 규제 변경내용을 금융회사들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책수단으로 레그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정부가 앞장서서 금융기업과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자동화 지원 등 레그테크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금융 선진국인 영국은 레그테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 의견 조사를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레그테크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 중이다. 레그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는 2018년에 이미 약 370억 달러(약 40.7조 원)에 이르렀으며,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KPMG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핀테크 투자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레그테크 투자건수는 145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 [ 글로벌 레그테크 투자규모 ]



※ 자료 : 금융감독원, KPMG

## 국내 도입·확산을 위한 과제

국내에서 레그테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활용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에 레그테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했고, 이후 레그테크 활성화에 노력 중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레그테크가 활발히 활용되려면 **첫째, 금융당국과 기업 간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레그테크 활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와 기업 간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다. 규제정보, 금융거래정보,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실행되려면 레그테크 솔루션 기획단계부터 민관 협업이 필수적이다.

**둘째,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자료의 저장·공유 방식, 통신 프로토콜 등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공유뿐 아니라 레그테크 개발 및 보급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레그테크를 활용하려면 규제정보뿐 아니라 금융거래와 고객에 대한 정보공유도 필요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려면 정부가 나서서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12월 28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sup>(E)</sup>	IMF		OECD	
			2020 <sup>(P)</sup>	2021 <sup>(P)</sup>	2020 <sup>(P)</sup>	2021 <sup>(P)</sup>
한국	2.7	2.0	-1.9	2.9	-1.1	2.8
세계	3.6	2.9	-4.4	5.2	-4.2	4.2
미국	2.9	2.3	-4.3	3.1	-3.7	3.2
중국	6.6	6.1	0.9	8.2	1.8	8.0
일본	0.8	0.7	-5.3	2.3	-5.3	2.3
EU	1.9	1.2	-8.3	5.2	-7.5	3.6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99	1,187	1,179	1,145	1,117
원/엔(100엔)	1,009	996	996	1,122	1,120	1,116	1,088	1,069
원/위안	167.5	166.4	166.4	170.9	171.1	173.0	170.5	169.1
원/유로	1,276	1,299	1,299	1,373	1,403	1,391	1,348	1,321
유가(Dubai)	53.2	69.7	63.5	43.3	44.0	41.5	40.7	43.4

##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2.6	1.6	0.6	-1.5	-3.4	3.4	-2.7	-
소매판매	1.9	4.3	2.4	0.5	0.3	4.3	-0.2	-
설비투자	14.4	-3.6	-6.2	8.1	-1.6	16.8	-1.0	-
수출	15.8	5.4	-10.4	-7.1	-10.3	7.3	-3.8	4.0
수입	17.8	11.9	-6.0	-11.6	-15.8	1.6	-5.6	-2.1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